

# '가습기 살균제' 8개월 재수사 마무리

### SK케미칼·애경 관계자 등 총 34명 기소 인체 유해 성분으로 살균제 제조·판매 환경부 공무원, 뇌물 받고 내부자료 제공 검찰, '특별공판팀' 구성...공소유지 강화

검찰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뒤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영)는 전남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퓨엔코 전 대표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 당시 증거를 숨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이마트 품질관리상무보 업체로부터 급품을 제공받은 뒤 국정감사 등 내부 자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도 전남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총 34명이다. 구속 피고인은 8명, 불구속 피고인은 26명이다. 앞서 검찰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지난 5월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지난 11월 불구속기소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관계자들을 각각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다만 검찰은 고발 대상이 됐던 최창원 SK디스카버리 부회장에 대해서는 비공개 소환 및 서면 조사 등을 거쳐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SK케미칼, 애경 등 업체들은 각각 인체에 유해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또는 폴리헥사메탈렌구아니딘(PHMG)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유발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케미칼은 정부부처 조사 및 수사·소속,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안전성 부실 검증 사실이 확인되는 서울대학교 흡입독성 시험 보고서를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SK케미칼 측이 지난 2008년 건강 유해성을 문의하는 클레임을 처리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애경산업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본격화되자 연구소 직원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이메일을 삭제하고, 보고서 등을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재판에 넘겨진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지난 2017년부터 애경 측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급품 및 항응을 받은 뒤 국정감사 자료 등 각종 내부 자료들을 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애경 측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라고도 전달한 혐의도 검찰은 두고 있다.



더위 식히는 소빙대원들. 절기상 1년중 가장 덥다는 대서(大暑)인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효정초등학교에서 훈련을 마친 수원소방서 소빙대원들이 호스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줄기를 맞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직장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갑질 제보 70% 늘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가 7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보 내용의 비율별로 보면 전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제보가 70% 이상이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괴롭힘 관련 제보가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달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메일 등을 통해 들어온 제보는 총 566건이다. 상담이 없는 주말을 빼면 평일 하루 평균 110건의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이같은 제보 건수와 관련, 법 시행 이전 일평균 65건을 기

검찰은 지난 1월 고발인 조사와 더불어 SK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서울대 흡입독성 시험보고서, 연구 노트 등을 확보해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 단계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들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검증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원료 공급 과정에서도 독성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수사 등이 시작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도 나섰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적용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시효는 피해자

가 숨진 시점부터 진행되고, 과실치사의 경우 제품 사용을 중단한 시점부터 적용된다"며 "(앞서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 판례를 참고해 기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피해 사례에 대해 기소 범위를 적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재판을 전담하는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옥시데킷벤처 외 국민임원에 대해서도 인터뷰 수배 절차를 진행해 추적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스

## 20대 후반 ADHD 환자 1년새 '급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10대 때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 5년 사이 20대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F90.0)'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 질환으로 5만2994명이 요양기관을 찾았다.

2013년 5만8132명에서 2015년 4만9233명, 2016년 4만9322명으로 매년 줄어든던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료인원은 2016년 9월 기준 6~18세 미만 아동에서 1년 만에 7.4% 증가했다. 2013년 385억원에서 2015년 343억원까지 감소했던 진료비도 2017년 378억원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2017년 전체 환자의 80.0%인 4만2398명이 남성으로 여성(1만596명)보다 4배 많았다. 범위를 5년으로 넓혀도 남성이 여성보다 4~4.2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진료비도 남성(310억원)이 여성(68억원)보다 4.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연령대별 특징을 보면 20대 이상 환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 대비 환자 증가율을 보면 20대 이상에선 건강보험 혜택 확대와 상관없이 환자가 꾸준히 늘어 40.9% 증가했다.

2017년만 보면 특히 25~29세 환자가 2016년보다 65.9%(1082→1795명)나 늘었다. 이어 30세 이상은 45.2%(1695→2461명), 20~24세는 29.6%(3054→3958명)씩 증가했다.

10~14세는 4.2%(1만7254→1만7978명), 그 다음으로 많은 5~9세는 5.3%(1만3561→1만4284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15~19세(-1.0%)와 0~4세(-11.3%)는 감소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연령대별로 보면 환자 3명 중 1명 이상(33.9%)인 1만7978명이 10~14세였다. 남성(1만4916명, 35.2%)과 여성(3062명, 28.9%) 모두 이 나이에 ADHD 진료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도 남녀 모두 10~14세 때가 가장 많았다.



### 이런판결 저런판결

## "공매로 고수익" 속여 2년간 84억 꿀꺽 50대...1심 법원 징역 5년

### 피해자들, 주택·노후자금 날리는 등 피해

세관 공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수십명으로부터 84억원어원을 가로챈 5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만)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구씨는 수입상품 도매업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2016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세관에서 공매를 받아 싸게 물건을 매입한 후 비싸게 되팔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5~30%의 수익금을 더 지급하겠다"면서 47명으로부터 308회에 걸쳐 투자금 84억468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구씨는 돈을 투자받던라

도 이를 직원 급여 명목이나 사무실 임차료, 그외 선투자자들의 투자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건 편취금액 및 유사수신행위액이 84억원이 넘어 매우 크고 수익금 지급 등의 형태로 43억원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더라도 실질적인 피해규모가 40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투자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속은 피해자들은 주택 자금, 노후 자금 등을 잃고 대출 채무를 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 일부가 고소를 취하했으며 피해규모가 커진 것에는 높은 수익을 막연히 믿은 피해자들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사했다.

뉴스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검진기관이 한정되어 있으나, 이외에도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 [고객센터 1577-1000]